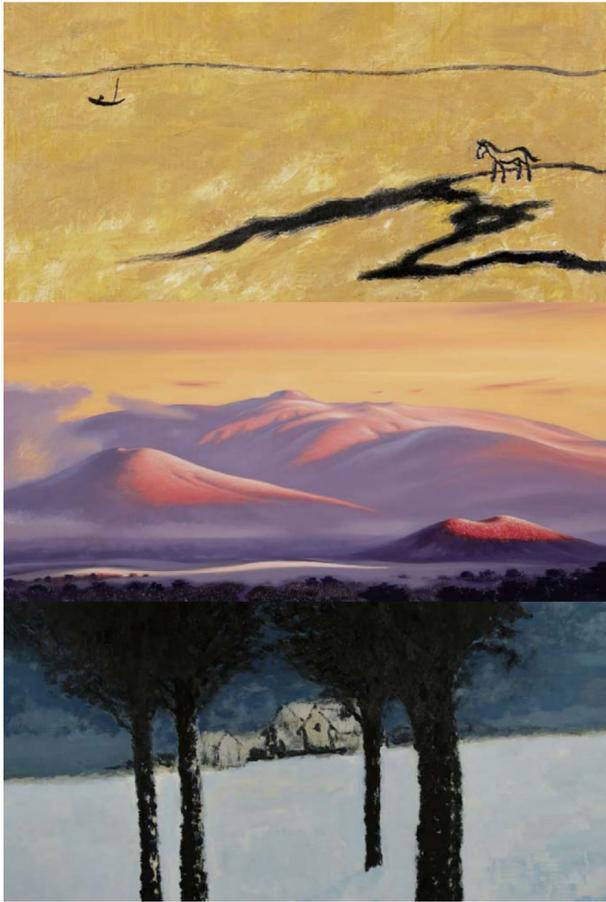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토,일)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Close 18:00		Close 17:00	

변시지 | 邊時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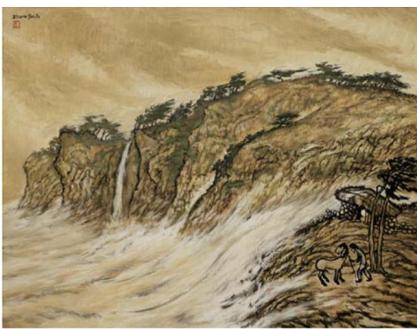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풍경이 제각기 보이는 것은 그 풍경이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풍경은 어떤 사람에게든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며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세계가 된다. 나로서 허용되는 것은 자연 속에 묵묵히 생활하며 자연에 감동하고 생각하며 조형활동을 하는 것이다.

강승희 | 姜丞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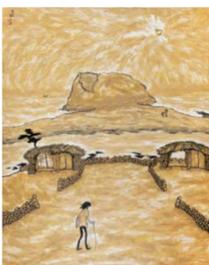
한라산과 바다. 고향의 향수를 연상하며 미명속의 고요한 정서와 여백이 있는 새벽은 제주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수묵화의 질감 검은색의 향연이 있다. 빛을 사로 잡은 검은 장막이 아니라 품었던 빛을 서서히 뿜어내는 새벽 기운의 색이다. 어둡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검은색은 아픔과 고독을 치유하는 힐링의 힘을 지녔다.

채기선 | 蔡基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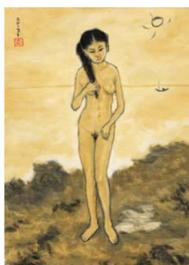
한라산... 96년 2월 어느날... 그날의 한라산을 만난 이후 나의 작업의 중심소재는 '한라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상적 삶과 미래에 대한 환상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속의 이상과 마음의 이어도를 한라산을 통하여 그려보고자 한다.



폭풍의바다1
캔버스에 유채 | 124x98cm | 1993



최도 빈집 우도 빈집
캔버스에 유채 | 160x112cm | 1997



해녀
캔버스에 유채 | 30x37cm | 1989



새벽-21922
캔버스에 유채 | 80.3x116.8cm | 2019



새벽-21911
캔버스에 유채 | 72.7x116.8cm | 2019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
캔버스에 유채 | 162x75cm | 2020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
캔버스에 유채 | 162x75cm | 2019